

시작

서론

Part 1

Part 2

Part 3

결론

바이트 기획

AI 시대, 기획자의 새로운 무기

2024.12.06

기획의 생명은 속도

바이브 코딩 시대입니다.

바이브 기획, 바이브 MVP가 요구되고 있어요.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는 "바이브 PM" 직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상황을 전제로,
"바이브 기획"이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자의 현실

주변 기획자들에게 물어보면:

- 자료조사는 **Perplexity**
- 주로 **GPT** 사용
- UX 설계는 **Figma Make, Gemini**

문제는?

기획자를 위한 특출난 AI 서비스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기획은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자료조사 하나만 해도:

경쟁사 분석

SWOT 분석

포지셔닝 설정

시장 규모 파악

타겟 고객 리서치

벤치마킹

이 각각이 또 세부 태스크로 쪼개지고,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고,
피드백 받으면 다시 돌아가서 수정하고...

시작

서론

Part 1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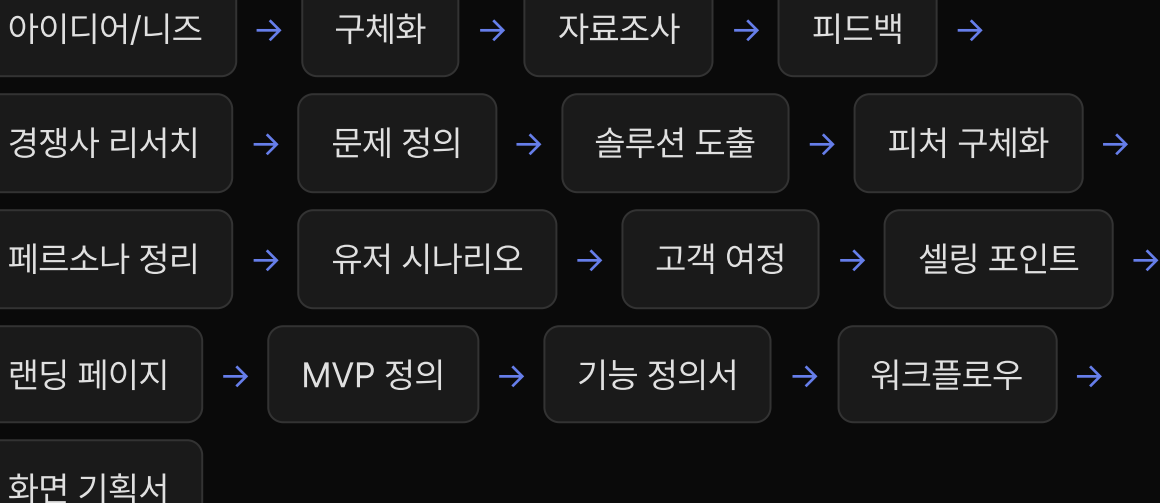
Part 3

결론

그래서 **"버튼 하나로 기획 완료!"** 같은 서비스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기획자의 업무 범위

신규 서비스 기준



전통적 방식

오늘 목표

1 / 24

몇 개월 소요

하루 만에!

시작

서론

Part 1

Part 2

Part 3

결론

중요한 전제

"모든 것을 AI화 할 수 없습니다.

AI는 생각의 출발점을 제공해주고,
그 뒤에 **휴먼 터치**는 항상 필수입니다."

Part 1: 왜 Claude Code인가?

02

AI 서비스 피로감

자료조사

Perplexity

코드

Cursor, Copilot

UX

Figma AI, Figjam

글쓰기

ChatGPT, Notion AI

분석

Claude...

시작

서론

Part 1

Part 2

Part 3

결론

문제점

- 서비스마다 다른 UI 학습
- 컨텍스트가 분산됨
- 워크플로우 단절
- 결과물 통합의 어려움

"하나만 잘 쓰면 된다"

*굳이 많은 AI 서비스를
다 알 필요 없습니다.*

Claude Code가 좋은 이유:

1 컨텍스트 유지

한 세션에서 모든 작업

2 파일 시스템 접근

실제 문서 생성/수정

3 확장 가능

MCP, Custom Commands로 나만의 워크플로우 구축

4 대화형

Claude Code vs 다른 AI 도구

구분	ChatGPT/Claude Web	Cursor/Copilot	Claude Code
주 용도	대화/질문	코드 작성	모든 작업
파일 시스템	X	코드 파일만	모든 파일
워크플로우	수동	코드 특화	커스텀 가능
컨텍스트	대화 내	코드베이스	프로젝트 전체
기획 적합성	보조 도구	부적합	최적

핵심: Custom Commands

Claude Code의 진짜 힘 = **나만의 명령어**

/appkit.new "테니스 코트 예약 앱"

→ 서비스 컨셉, 타겟 고객, 핵심 가치 자동 도출

/appkit.spec 003-booking "메인화면에서 검색 후 바로 예약"

→ 기능 구체화, 화면 흐름, 비즈니스 룰 자동 작성

/appkit.customer

→ 페르소나, 고객 여정 자동 생성

**포인트: AI를 "잘 쓰는" 게 아니라
"내 업무에 맞게" 만드는 것**

Part 2: AppKit 프레임워크

아이디어를 고객 가치로 변환하는
논리적 사고 프레임워크

핵심 철학:

고객 가치 우선

기능이 아닌 고객의 문제 해결 중심

논리적 사고 연습

큰 작업을 작은 단계로 쪼개기

스토리텔링 기반

고객의 하루와 고민을 이해하고 설득

MVP 중심 실행

최소한의 범위로 최대한의 검증

논리적 사고 7단계

1. `/appkit.new` → 아이디어 스케치 (어떤 서비스인지?)
2. `/appkit.spec` → 기능 구체화 (뭐가 필요할까? 누가 쓸까?)
3. `/appkit.customer` → 고객 스토리 (고객의 하루, 고민, 해결)
4. `/appkit.sales` → 세일즈 랜딩 (어떻게 설득할까?)
5. `/appkit.mvp` → MVP 범위 (최소한으로 검증하려면?)
6. `/appkit.merge` → 기획 정돈 (흩어진 기획 통합)
7. `/appkit.design` → 개발 준비 (API, ERD, 기술 스펙)

데모: 테니스 코트 예약 앱

Step 1: 아이디어 스케치

`/appkit.new` Tennis court booking app with coupons and time deals

결과물:

- 서비스 컨셉: "직장인의 주말 운동을 쉽게 만드는 예약 서비스"
- 핵심 문제: 전화 예약 번거로움, 가격 불투명, 시간 확보 어려움
- 해결책: 3초 예약, 가격 비교, 자동 할인

Step 2: 기능 구체화

```
/appkit.spec 003-booking "퇴근길 지하철에서 3초 예약"
```

결과물:

- 고객 가치 분석 (누가/언제/왜/어떻게)
- 화면 흐름 자동 생성
- 비즈니스 룰 도출

Step 3: 고객 스토리

`/appkit.customer`

김대리 (35세, IT기업)의 하루:

07:00 - "오늘도 운동 못하겠네..." (죄책감)

12:00 - "주말엔 테니스 쳐야지" (결심)

18:00 - "코트 예약 전화... 귀찮다" (좌절)

19:00 - [앱 발견] "3초 만에 예약?" (희망)

19:02 - "토요일 오전 예약 완료!" (만족)

생성되는 산출물

```
docs/appkit/  
├─ overview.md # 서비스 컨셉  
├─ specs/  
│ └─ 001-search/spec.md # 기능별 상세  
│ └─ 002-booking/spec.md  
│ └─ ...  
├─ customer-persona.md # 페르소나  
├─ customer-journey.md # 고객 여정  
├─ sales-landing.md # 세일즈 메시지  
├─ mvp-scope.md # MVP 범위  
├─ merge/ # 통합 문서  
└─ design/ # 개발 스펙
```

...이 모든 게 하루 안에 가능

Part 3: 여러분의 것을 만드세요

중요

AppKit 자체가 정답이 아닙니다.

AppKit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 제가 기획 업무를 하면서 필요했던 것
- 제 사고방식을 반영한 것
- 제 업무 플로우에 맞춘 것

여러분의 업무는 다릅니다.

AppKit 오픈소스 공개

GitHub에서 확인하세요

github.com/rupy1014/appkit

- 프롬프트 구조와 명령어 설계를 참고하세요
- Fork해서 여러분 업무에 맞게 수정해서 쓰세요
- 정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만드는 방법을 가져가세요

핵심은 "나만의 프레임워크"

생각해볼 질문:

- 1 내 업무에서 반복되는 패턴은?
- 2 매번 같은 질문을 AI에게 하나?
- 3 자주 만드는 문서 형식이 있나?
- 4 팀에서 공유하면 좋을 워크플로우는?

Custom Command 만들기

Claude Code에서:

description: 내 업무를 자동화하는 명령어

입력

\$ARGUMENTS

실행할 작업

1. [여러분의 업무 단계]
2. [여러분의 체크리스트]
3. [여러분의 출력 형식]

시작하는 방법

1 관찰

일주일간 반복 업무 기록

2 패턴화

공통점 찾기

3 명령어화

Custom Command 작성

4 개선

사용하면서 다듬기

오늘의 핵심 메시지

AI 서비스 피로

다 알 필요 없다,
하나를 깊게

Claude Code

기획에 최적화된 도구

나만의 프레임워크

AI를 "쓰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

"기획의 속도는 도구가 아니라
사고방식에서 나옵니다.

AI는 그 사고를 구체화하는 도구일 뿐,
여러분만의 방식을 만들어주세요."

참고 자료

Claude Code

claude.ai/code

AppKit 오픈소스

github.com/rupy1014/appkit

프롬프트와 명령어 구조 참고

Fork해서 여러분 업무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세요

감사합니다 🙏